

圖書流通 效率化를 위한 公正去來政策

申 光 湜

再販賣價格維持는 어떤 다른 제품보다도 圖書流通에서 가장 오랫동안 쓰여 왔으며, 원칙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의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에서도 出版物 등 著作物에 대해서만은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本稿는 도서유통에서의 再販賣價格維持와 返品制의 經濟的 機能과 效果를 분석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는 書店이 수집·전달하는 市場情報에 대한 財產權을 확립하여 판매 전망이 불확실한 도서가 취급·전시되도록 하는 것으로 返品制가 이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제공하는 代替的 手段이 된다. 미국에서 再販賣價格維持가 違法化되자 返品制가 도입되었고 판매마진이 감소하면서 返品率이 증가한 것이나, 재판매가격유지를 허용해 온 영국 등 유럽제국에서 반품제 없이 圖書流通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圖書의 再販賣價格維持 허용으로 출판사들은 返書에 따른 費用을 감소시킬 수 있고 서점들이 大型化 誘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再販賣價格維持契約을 체결한 출판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返品制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판매가격유지는 출판사가 원하는 도서에 대해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割引販賣與否와 時期도 출판사가 제한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 序 論

책은 한 나라의 문화발전과 지식전달의 매

개체로서 文化商品이라는 특수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이하 公正去來法)에서는 원칙적으로 再販賣價格維持를 금지하고 있지만 出版物 등 著作物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大型書店의 출현에 따른 갈등, 판매마진에 대한 출판사와 서점간의 마찰, 再販賣價格維持를 둘러싼 서적상조

筆者：本院 研究委員

* 本稿를 읽고 많은 助言과 유익한 論評을 하여 주신 本院의 李奎億 박사, 南逸聰 박사 그리고 劉承爕 박사께 감사드리며, 일본문헌을 번역해 준 金滿鎔 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합의 不公正去來行爲 등 도서유통상에 여러 문제점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本稿는 圖書流通에서의 再販賣價格維持와 返品制의 경제적 기능 및 효과를 분석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流通效率을 제고할 수 있는 경쟁정책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출판 서점업계의 실태와 도서유통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章에 걸쳐 출판 서점업계의 현황, 유통경로, 거래관행 등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概觀하였다. 第IV章에서는 출판사와 서점간의 도서 재판매가격유지계약 내용을 살펴본 후에 도서관련 不公正去來行爲의 내용과 패턴을 정리하였다. 本稿의 핵심부분이 되는 第V章에서는 도서유통에 있어서 再販賣價格維持와 返品制가 갖는 經濟的 機能과 效果를 분석하였다. 도서유통의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에 관한 기존의 경제이론들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재판매가격유지와 반품제가 서점의 도서전시를 유도하여 市場情報를 획득하기 위한 대체적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보였다. 第VI章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판매가격유지를 둘러싼 不公正去來行爲의 競爭制限의 성격을 규명하고 도서유통 효율의 제고를 위한 競爭政策方向을 제시하였다.

II. 出版 書店業의 現況

1. 出版社

1989년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5,097개의 출판사가 등록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약 45%에 해당하는 2,290개사가 출판실적이 있어 모두

38,839종, 약 1억 9,700만부의 도서를 발행하였다. 우리의 도서시장규모는 1970~80년대에 걸쳐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表 1) : 1972~82년 사이에 發行種數 6.5배, 發行部數는 8.1배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1982~89년중에도 각각 33%와 123% 증가하여 신장세가 크게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出版量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발행부수는 발행부수 증가율이 발행종수 증가율을 상회한 결과 1982년의 3,026부에서 1989년에는 5,078부로 약 68% 늘어났다. 또한 발행종수와 부수면에서 전반적으로 初版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도서시장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출판사의 규모별 분포도 변화하여 왔다. 出版社數가 증가하면서 無實績出版社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동시에 大型出版社數가 증가하고 도서발행도 이들에게 집중되어 규모별 분포가 兩極化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表 2). 먼저 무실적출판사의 비율은 1982년에 전체의 15.5%, 1986년까지만 해도 27.6%밖에 되지 않았으나, 1987년 10월 出版登錄自由化 措置로 출판사수가 급증하면서 40.9%로 크게 늘었고 1988년부터는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반면에 201종 이상을 펴낸 대형출판사는 1982년 16개사에서 1989년에는 43개사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연간 1,000종 이상을 발행하는 출판사도 3개나 되게 되었다. 또한 51종 이상의 책을 펴낸 출판사가 1982년에는 113개사로 이들이 全出版量의 50%(발행종수기준)를 점유했으나 1989년에는 159개사로 늘면서 全出版量의 65.4%를 발행하였다.

〈表 1〉 出版 書店業界의 現況

| | 出版社數 | 發行種數 | 發行部數(千部) | 平均部數 | 書店數 |
|------|-------|--------------|---------------|-------|-------|
| 1972 | 1,778 | 4,469(87.5) | 10,858(86.5) | 2,429 | |
| 1977 | 1,631 | 14,375(63.2) | 37,812(71.5) | 2,634 | 2,955 |
| 1980 | 2,088 | 20,985(62.2) | 64,610(78.0) | 3,079 | 3,690 |
| 1981 | 2,176 | 23,983(56.8) | 73,128(69.4) | 3,049 | 3,662 |
| 1982 | 2,170 | 29,190(60.3) | 88,326(70.9) | 3,026 | 3,565 |
| 1983 | 2,323 | 33,321(55.8) | 104,411(61.9) | 3,134 | 3,678 |
| 1984 | 2,519 | 33,156(57.6) | 110,498(63.3) | 3,333 | 3,679 |
| 1985 | 2,665 | 33,743(58.5) | 114,970(68.2) | 3,407 | 3,738 |
| 1986 | 2,635 | 37,411(59.1) | 145,100(69.3) | 3,878 | 4,298 |
| 1987 | 3,004 | 38,301(58.5) | 155,801(66.9) | 4,067 | 4,681 |
| 1988 | 4,397 | 38,454(58.0) | 167,258(65.6) | 4,349 | 4,880 |
| 1989 | 5,097 | 38,839(53.4) | 197,225(61.2) | 5,078 | 4,910 |

註：出版種數, 部數는 文化公報部 답본에 의한 집계로서 單화는 제외된 것임.
()안은 初版構成比.

資料：大韓出版文化協會, 『韓國出版年鑑』, 各年號.

〈表 2〉 實績別 出版社數 分布

| 연도 실적중수 | 1977 | 1982 | 1985 | 1988 | 1989 |
|------------|-------------|-------------|-------------|-------------|-------------|
| 0 | 824(50.5) | 338(15.5) | 761(18.6) | 2,226(50.6) | 2,807(55.1) |
| 1~5種 | 436(26.7) | 945(43.4) | 996(37.4) | 1,244(28.3) | 1,386(27.2) |
| 6~10種 | 127(7.8) | 313(14.4) | 303(11.4) | 299(6.8) | 316(6.2) |
| 11~15種 | 78(4.8) | 164(7.5) | 176(6.6) | 168(3.8) | 152(3.0) |
| 16~20種 | 31(1.9) | 114(5.2) | 93(3.5) | 99(2.3) | 85(1.7) |
| 21~30種 | 47(2.9) | 91(4.2) | 95(3.5) | 99(2.3) | 98(2.0) |
| 31~50種 | 36(2.2) | 92(4.2) | 89(3.3) | 83(1.9) | 94(1.9) |
| 51~100種 | 32(1.9) | 67(3.1) | 80(3.0) | 95(2.2) | 72(1.5) |
| 101~150種 | 6(0.4) | 22(1.0) | 28(1.1) | 37(0.8) | 30(0.6) |
| 151~200種 | 4(0.2) | 8(0.4) | 14(0.5) | 14(0.3) | 14(0.3) |
| 201種이상 | 10(0.6) | 16(0.7) | 30(1.1) | 33(0.7) | 43(0.9) |
| 計 | 1,631(100) | 2,170(100) | 2,665(100) | 4,397(100) | 5,097(100) |

資料：大韓出版文化協會, 『韓國出版年鑑』, 各年號.

2. 書店

全國書籍商組合聯合會(書聯)의 자료에 따르면 1989년말 현재 전국 서점수는 4,910개이다. 이 가운데 都賣機能書店이 약 700여개로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도소매를 함께 하고 있어 순수도매서점은 70여개뿐이라고 한다. 한편 書聯이 집계한 1982년의 서점수는 3,565개인 데 반하여 經濟企劃院의 『都小賣業센서스報告書』에는 서적소매업체 6,428개, 도매업체 202개(1982년 7월 기준)로 조사되어 있다. 1986년의 경우에도 書聯은 4,298개의 서점이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總事業體統計調查報告書』에는 서적도매업체(신문도매 포함)가 1,148개, 소매업체가 10,73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어 경제기획원의 숫자가 서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련의 組合員書店 이외에도 문방구나 잡화점 등 많은 판매업소들이 서적소매를 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점들도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개인

경영형태의 소규모사업체이지만 도서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서점의 확장 및 新規進入에 의해 大型書店이 점차 늘고 있어 서점간 규모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1982년에는 종업원 1~2명인 소매서점이 전체의 75.2%에 달하였지만 1986년에는 57.8%로 그 비중이 많이 감소하였고, 종업원 20인 이상의 대형서점은 1982년에 전체의 3.3%에 불과하던 것이 86년에는 6.9%로 크게 증가하였다(表 3). 사업장 규모면에서도 書聯의 1987년말 조사결과 총 4,652개 서점 가운데 99.4%가 100평미만의 소규모서점으로 나타났지만 출판량의 증가와 더불어 書店數와 賣場面積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1986년부터 서점의 大型化趨勢가 뚜렷하여 100명 이상의 대형서점이 1986년말에는 전국적으로 13개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 2월에는 32개로 늘어났고, 최근에는 서울과 지방주요도시에 각각 20개와 2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서점의 출현은 教保文庫의 지방지점설치를 둘러싼 事態에서 보듯이 도서의 전시판매공간 확충을 원하는 출판업체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서적

〈表 3〉 從業員規模別 小賣書店의 分布

| 從業員數 | 1982 | | 1986 | |
|--------|-------|--------|--------|--------|
| | 書店數 | 構成比(%) | 書店數 | 構成比(%) |
| 1~2人 | 4,831 | 75.2 | 6,201 | 57.8 |
| 3~4人 | 675 | 10.5 | 1,357 | 12.6 |
| 5~9人 | 402 | 6.3 | 1,296 | 12.1 |
| 10~19人 | 305 | 4.7 | 1,142 | 10.6 |
| 20人 이상 | 215 | 3.3 | 735 | 6.9 |
| 計 | 6,428 | 100.0 | 10,731 | 100.0 |

資料：經濟企劃院, 『都小賣業센서스報告書』, 1982, p. 34.

_____, 『總事業體統計調查報告書(都小賣業篇)』, 1987, p. 305.

상조함과 지역 도매서적상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심한 진통과 갈등을 유발하여 왔다.

3. 圖書의 種類

도서발행종수와 부수의 증가가 보여주듯이 출판물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圖書類型別 構成比는 극심한 偏重現象을 보이고 있다. 1989년의 분야별 도서발행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출판사와 서점들이 얼마나 학습참고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表 4) : 發行種數面에서는 아동도서가 전체의 20.5%, 학습참고서가 12.2%를 점하고 있지만 發行部數에 있어서는 학습참고서가 총발행부수의 48.4%, 그 다음으로 아동도서가 20.5%를 차지하고 있어 이 두 분야의 도서가 전출판량의 거의 70%나 점하고 있

다. 학습참고서의 경우 발행종수와 부수의 初版構成比가 각각 88.3%와 90%로서 이는 全初版發行部數의 71.1%가 학습참고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발행종수의 12.2%를 차지하는 학습참고서가 발행부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種當 平均發行部數가 2만부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평균발행부수는 2,985부(初版 2,112부, 重版 3,810부)로서 모두 전체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III. 去來方法과 流通體系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도·소매서점과 신용위주의 委託販賣去來를 하고 있고 도매서점도

〈表 4〉 一般圖書 發行種數, 發行部數 및 平均發行部數(1989)

| | 發行種數 | 發行部數(千部) | | 平均發行部數 | |
|------|--------------|----------|---------------|--------|--------|
| | | 初版 構成比 | 初版 構成比 | | |
| 總 類 | 759(2.0) | 50.5 | 2,892(1.5) | 33.1 | 3,810 |
| 哲 學 | 1,053(2.7) | 44.7 | 1,717(0.9) | 37.0 | 1,630 |
| 宗 教 | 3,331(8.6) | 47.1 | 14,369(7.3) | 25.3 | 4,313 |
| 社會科學 | 4,594(11.8) | 67.0 | 9,060(4.6) | 77.2 | 1,972 |
| 純粹科學 | 538(1.4) | 41.3 | 1,223(0.6) | 55.4 | 2,272 |
| 技術科學 | 3,383(8.7) | 53.4 | 4,628(2.3) | 37.8 | 1,368 |
| 藝 術 | 2,107(5.4) | 44.6 | 5,431(2.8) | 49.3 | 2,577 |
| 語 學 | 1,976(5.1) | 57.0 | 5,742(2.9) | 57.3 | 2,905 |
| 文 學 | 6,817(17.6) | 50.4 | 13,873(7.0) | 42.9 | 2,035 |
| 歷 史 | 1,570(4.0) | 55.4 | 2,503(1.3) | 43.5 | 1,594 |
| 學習參考 | 4,733(12.2) | 88.3 | 95,400(48.4) | 90.0 | 20,156 |
| 兒 童 | 7,976(20.5) | 33.4 | 40,387(20.5) | 18.1 | 5,063 |
| 計 | 38,839(100) | 53.4 | 197,225(100) | 61.2 | 5,078 |

註 : ()안은 構成比.

資料 : 大韓出版文化協會, 『韓國出版年鑑』, 1990.

수탁물을 소매서점에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返品이 허용되지 않는 買切販賣는 학습참고서 등 인기도서에만 예외적으로 쓰이고 있다.

1. 流通經路

우리나라 전발행도서의 약 90%는 일반독자들에게 판매되며 나머지 10% 정도가 출판사나 도매서점에 의해 단체와 도서관에 판매되고 있다. 도서유통체계는 전체적으로 서점판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출판사→소매서점과 도매단계→독자의 經路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전발행도서의 65.8%가 도매서점을 거쳐 유통되고 있지만 출판사→소매서점간의 直去來로 22.7%가 유통되고 있으며, 전발행도서의 57.7%가 소매서점을 통하여 일반독자들에게 판매되지만 도매서점이 일반독자들에게 판매하는 비중도 19.3%에 이르고 있다¹⁾.

도서별 주요 유통경로를 살펴보면(表 5) 서점의 一般讀者販賣比率이 학습참고서(78.3%), 단행본(70.3%), 전문도서(60.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점들이 참고서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매서점에 의한 일반독자 판매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단행본(70.3%)이며, 다음으로 참고서(50.7%), 아동도서(38.4%), 잡지(36.9%), 전문도서(31.8%), 전집(24.5%)의 순이다. 도매서점의 일반독자판매는 참고서와 전문도서의 주요 유통경로로서 참고서의 27.6%, 전

문도서의 28.5%가 이 경로로 판매된다. 학습참고서의 경우 78.3%가 도매서점을 거쳐 유통되고 있어 도매서점(總販)의 기능이 참고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학습참고서가 시장규모가 가장 큰 분야로서 독립적인 도매기능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반면에 전체도서의 22.7%를 차지하고 있는 출판사와 소매서점간의 直去來는 특히 아동도서와 단행본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어 각각 38.4%와 32.2%가 이 경로로 유통되고 있다.

독자들이 책을 구매하는 장소는 도서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表 6). 專門圖書는 주로 다양한 서적을 구비한 대형서점에서 구입하고, 참고서와 잡지는 집, 학교, 직장 부근에 있어 이용하기가 편리한 일반소형서점에서 많이 구입하며, 전집은 기타(월부상, 노상, 행사 등)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독자의 도서별 구매장소실태는 학습참고서의 주고객인 학생은 매장면적 50평 미만의 소형서점을 주로 이용하며 전문도서의 주고객인 일반인은 100평 이상의 대형서점을 많이 이용한다는 조사결과(表 7)와 일치하는 것으로 소형서점이 시장규모가 크고 판매속도가 빠른 학습참고서와 잡지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流通마진

서점의 圖書購入價格率(구입가격/표시정가)을 살펴보면(表 8) 출판사에 따라 약간 다른 해도 도매서점은 소매서점보다 평균 약 5~6% 더 많은 割引을 받고 있으며, 전문도

1) 韓國出版研究所(1988), p.17. 韓國出版研究所의 『圖書流通實態調查研究』는 1987년에 출판사 150개, 서점 183개, 독자 232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 조사한 결과로서 최근의 도서유통실태에 관한 유일한 조사분석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表 5〉 圖書別 主要 流通經路

| | | |
|--------|-------------------------|-------|
| • 全體圖書 | 출판사→충도매기능서점→소매서점→독자 | 35.0% |
| | 출판사————→소매서점→독자 | 22.7% |
| • 兒童圖書 | 출판사————→소매서점→독자 | 38.4% |
| | 출판사→충도매기능서점→직판/월부/행상→독자 | 21.7% |
| • 全 集 | 출판사→충도매기능서점→직판/월부/행상→독자 | 27.2% |
| | 출판사→충도매기능서점→소매서점→독자 | 24.5% |
| • 單行本 | 출판사→충도매기능서점→소매서점→독자 | 38.1% |
| | 출판사————→소매서점→독자 | 32.2% |
| • 參考書 | 출판사→충도매기능서점→소매서점→독자 | 50.7% |
| | 출판사→충도매기능서점————→독자 | 27.6% |
| • 專門圖書 | 출판사→충도매기능서점→소매서점→독자 | 31.8% |
| | 출판사→충도매기능서점————→독자 | 28.5% |
| • 雜 誌 | 출판사→충도매기능서점→소매서점→독자 | 36.9% |
| | 출판사————→단체/도서관 | 28.5% |

資料：大韓出版文化協會，『圖書流通實態調查研究』，1988，pp.17~18.

〈表 6〉 讀者의 圖書別 購買場所 比率

| | 兒童圖書 | 全 集 | 單 行 本 | 參 考 書 | 專 門圖書 | 雜 誌 | 平 均 |
|--------|-------------|--------------|--------------|--------------|--------------|--------------|------|
| 대형서점 | 25.2 | 26.3 | 35.0 | 31.5 | 63.9 | 10.2 | 35.7 |
| 소형서점 | 36.7 | 22.3 | 55.9 | 60.5 | 28.2 | 74.1 | 40.0 |
| 칭계할인서점 | 10.7 | 9.7 | 3.6 | 6.5 | 5.2 | 1.6 | 5.9 |
| 기 타 | 27.4 | 41.7 | 5.5 | 1.5 | 2.7 | 14.1 | 11.4 |
| 계 | 100 (98) | 100 (138) | 100 (186) | 100 (188) | 100 (170) | 100 (184) | 100 |

註：()안은 응답자수.

資料：韓國出版研究所，『圖書流通實態調查研究』，1988，pp.183~185.

〈表 7〉 賣場面積 規模別 書店顧客分布

| | 學 生 | 主 婦 | 一 般 人 | 其 他 | 計 |
|--------|------|------|-------|-----|----------|
| 10평미만 | 60.9 | 11.9 | 23.6 | 3.6 | 100(18) |
| 10~49평 | 52.4 | 10.9 | 30.3 | 6.4 | 100(117) |
| 50~99평 | 47.8 | 10.4 | 36.1 | 5.7 | 100(28) |
| 100평이상 | 39.7 | 10.7 | 40.9 | 8.7 | 100(17) |

註：()안은 응답자수.

資料：韓國出版研究所，『圖書流通實態調查研究』，1988，p.175.

〈表 8〉 圖書別, 業態別 圖書購入價格率

| | 單行本 | 參考書 | 專門圖書 | 兒童圖書 | 雜誌 |
|--------|------|------|------|------|------|
| 都・小賣兼業 | 68.1 | 71.8 | 80.5 | 64.9 | 72.2 |
| 小賣書店 | 71.3 | 75.3 | 80.2 | 66.3 | 76.3 |
| 全體平均 | 70.1 | 73.9 | 80.4 | 65.4 | 74.7 |

資料：韓國出版研究所, 『圖書流通實態調查研究』, 1988, p.84.

서와 아동도서의 경우에는 業態別 購入價格率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잡지, 단행본, 참고서의 경우에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잡지, 단행본, 참고서의 판매에 있어서 도매역할이 전문도서나 아동도서의 경우보다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서종류별로 보았을 때 서점의 購入價格率은 아동도서가 평균 65% 정도로 가장 낮으며 단행본, 참고서, 잡지, 전문도서의 순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점규모 및 지역에 따라서도 서점의 구입가격률이 달라지고 있어 도서의 구입경로에 따라 구입가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²⁾.

圖書別 購入價格率 차이는 도서판매에 있어서 서점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도서는 대개 가격이 높게 매겨져 있고 20%의 할인율로 再販賣業者에게 공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문도서는 主市場이

대학이므로 출판사가 잠재수요자들을 파악하여 직접 마케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서점에서 많은 在庫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판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一般讀者販賣에 있어서도 구매자들이 해당분야의 전문가일 것이므로 서점이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전문도서는 비교적 商品壽命이 길고 판매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비교적 팔릴 것이 분명한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판매전망이 불투명하고 독자들이 책을 찾는 實際需要期間이 짧은 아동도서와 단행본의 경우에는 서점의 도서전시와 정보제공 등 판매촉진노력이 판매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책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서점이 다양한 도서를 갖추어 진열하고 적극적으로 판매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서점의 역할과 비용이 크다고 하겠다.

3. 代金決濟

출판사들은 주로 외상·어음·할부방식으로 도서대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도서별로는 代金回收方法 利用率에 차이가 있다(表 9). 잡지의 경우 선수금 및 현금·수표의 이용률이 57%에 이르고 있지만 그외의 도서에 대해서

2) 『圖書流通實態調查研究』에는 유통판매액 1억원 이상의 대형서점 구입가격률이 아동도서를 제외한 전문분야에서 가장 낮고, 특히 참고서와 전문도서에서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출판사나 도매상이 서점에 따라 도서판매가격을 달리 책정하여 공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량주문하는 도매상과 대형소매서점이 구매가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表 9〉 出版社의 圖書別 代金回收方法(%)

| | 兒童圖書 | 全 集 | 單 行 本 | 參 考 書 | 專 門 圖 書 | 雜 誌 |
|-----------|-------|-------|-------|-------|---------|-------|
| 先收金 | 0.8 | 6.3 | 0.3 | 4.6 | 2.5 | 15.0 |
| 現金·手票 | 18.9 | 10.0 | 27.8 | 23.4 | 36.9 | 42.0 |
| 외상·어음·割賦 | 79.4 | 82.4 | 66.7 | 70.2 | 60.0 | 40.8 |
| 其 他 | 0.6 | 0.7 | 4.8 | 1.8 | 0.6 | 2.2 |
| 計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어음決濟期間(月) | 5.2 | 7.0 | 3.6 | 3.5 | 3.2 | 2.8 |

資料：韓國出版研究所, 『圖書流通實態調查研究』, 1988, p.64.

는 외상·어음·할부가 가장 중요한 대금회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선수금이용률은 잡지가 15%로 단연 높고 단행본과 아동도서가 가장 낮으며, 현금·수표이용률도 잡지가 42%로 가장 높으며 아동도서와 전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도서와 전집류는 외상·어음·할부의존도가 8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어음결제기간도 각각 5.2개월과 7개월로 타도서보다 월등히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³⁾.

출판사의 대금회수방법이 도서별로 다른 것은 도서의 상품수명 및 판매확실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사성을 갖는 잡지류는 一定期間內에 판매되어야 하며 판매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선수금과 현금·수표이용률이 높을 것이나, 아동도서나 단행본과 같이

독자층이 不特定多數이고 판매가 불확실한 도서일수록 선수금사용이 극히 드물고 외상·어음·할부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返 品

출판사들은 서점들이 판매하지 못한 책들을返品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유통산업의 오랜 去來慣行으로 정착되어 있다. 返品은 運送費用을 서점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着拂로 출판사에 부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韓國出版研究所가 99개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返品率(部數基準)은 평균 21.2%로 이는 출판사가 配本한 매 5권의 책 가운데 약 1권 정도가 되돌아온다는 것을 뜻한다⁴⁾. 그러나 이 返品率은 모든 도서에 대하여 측정된 것으로 출판사가 一般讀者販賣용으로 보낸 新刊書籍의 返品率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既刊圖書보다는 新刊圖書가 반품될 가망성이 훨씬 높고 신간도서가 전출판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품도서는 거의 新刊일 것이며 전발행도서의 10% 정도를 구매하는 도서관이 반품하는 경우는 거

3) 業態別로도 도서구입대금지불에 차이가 있어도·소매경업서점의 외상·어음이용률이 소매서점보다 도서별로 3.2%에서 23.9%까지 높으며 어음결제기간도 길다. 韓國出版研究所(1988), pp. 178~179.

4) 165개 서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수기준 月平均 返品率은 16.4%로 출판사의 반품률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50개 서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금액기준 월평균 반품률은 21.4%로 나타났다. 韓國出版研究所(1988), p.77, 79.

〈表 10〉 圖書別 返品期間의 書店分布(서점수 : %)

| | 兒童圖書 | 全 集 | 單 行 本 | 參 考 書 | 專 門 圖 書 | 雜 誌 |
|--------|----------|---------|----------|----------|----------|----------|
| 6개월이내 | 8(33.3) | 6(66.6) | 20(66.7) | 6(22.2) | 11(40.7) | 31(96.9) |
| 6개월~1년 | 13(54.1) | 2(22.2) | 7(23.3) | 21(77.8) | 12(44.5) | - |
| 1년이상 | 3(12.6) | 1(11.1) | 3(10.0) | - | 4(14.8) | 1(3.1) |
| 계 | 24(100) | 9(100) | 30(100) | 27(100) | 27(100) | 32(100) |
| 평균월수 | 9.8 | 8.0 | 7.7 | 10.4 | 10.4 | 1.1 |

資料 : 韓國出版研究所, 『圖書流通體系 및 管理改善研究』, 1989, p.42.

의 없다.

圖書返品率은 출판사와 서점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從業員數가 많고 月販賣額이 큰 대규모출판사일수록 返品率이 적어지고 있어 대규모출판사들의 출판 및 판매활동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서점의 경우에도 매장면적과 월판매액이 큰 大型書店일수록 返品率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고객의 大型書店 選好傾向과 대형서점의 효율적인 구매 및 판촉활동을 보여주고 있다⁵⁾.

서점의 반품은 도서가 상품가치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품기간은 도서의 商品壽命 期間으로 볼 수 있다. 韓國出版研究所가 1989년도에 39개 서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表 10)를 보면 서점에서 출판사나 도매상으로 在庫圖書를 반품하는 기간은 도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잡지의 평균반품기간이 1.1개월로 가장 짧고 단행본도 평균 7.7개월로 짧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참고서와 전문도서가 10.4개월로 조사되었지만 참고서의 경우 1년 이후에 반품하는 서점은 전혀 없었다.

5) 韓國出版研究所(1988), p.58 및 pp.171~172.

6) 韓國出版研究所(1989), p.43.

일단 책이 서점에서 반품되고 나면 서점판매는 끝난 것이며 출판사는 返品圖書들을 처분해야만 한다. 28개 출판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판사들은 평균 반품도서의 36.5%를 폐기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표지갈이나 가장자리절단 후 재출하하거나(39%) 할인시장 출하(6.4%) 또는 각종 사회단체기증 등 기타의 방법(18.1%)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IV. 圖書關聯 不公正去來行爲

1. 出版物 再販賣價格維持契約

도서의 定價販賣制는 書聯이 주축이 되어 1977년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의 적극적 노력으로 어느 정도 확립되어 갔다. 그러다가 1981년 4월 公正去來法이 시행되면서 書聯을 중심으로 실시해 오던 정가판매제는 서점간의 수평적 談合行爲로 이 법에서 금지하는 不當한 共同行爲에 해당되어 그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公正去來法은 第20條 第2項에서 예외적으

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著作物”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서의 정가판매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출판사와 서점간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있어야만 정가판매제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書聯은 계약체결 이전의 조치로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정가판매실시 결의내용을 공동행위로 인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공정거래실은 6개월 이내에 大韓出版文化協會(出協)와 書聯간의 단체계약을 통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1982년 7월 出協과 書聯은 각각 회원사의 위임을 받아 출판물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후 이 계약은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

1986년 8월 5일 出協과 書聯간에 체결된 ‘出版物 再販賣價格維持契約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再販賣價格維持(이하 再販)契約는 원칙적으로 출판사와 서점 등 거래당사자간에 체결해야 하며, 出協과 書聯이 각각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하고자 하는 출판사와 서적상의 위임을 받아 포괄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再販出版物은 출판사의 뜻에 따라 最終小賣價格(定價)을 표시한 출판물이다. ③ 서적상은 재판출판물의 할인판매 및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再販出版社와 書籍商은 非再販書籍商에 재판출판물을 공급하지 않으며, 출판사 및 도·소매점업서적상은 재판출판물을 실수요자에게 할인판매할 수 없다. ④ 서적상 또는 서련은 재판위반행위를 감시, 발견된 위반사실을 出協에 告知하고 출협은 위반서적상과 해당계약출판사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며 출판사는 위반서적상에 대해 警告, 期限附去來制限 또는 去來停止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출판사가 비재판서점에 재판도서를 공급하거나 실수요자에게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 制裁條項을 준용할 수 있다. ⑤ 汚損品の 처분, 대량납품, 저자판매, 기증도서 등은 예외로 인정하며, 특히 출판후 3년이 경과한 출판물은 再販出版社가 재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公正去來法 違反事件

公正去來法이 시행된 1981년부터 90년까지 출판물과 관련된 법 위반사건은 32건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학습참고서, 만화와 무협지, 여성잡지 등 서점의 의존도가 높은 도서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가운데 출판사의 違法行爲는 16건으로 부당표시와 허위과장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련 및 산하조합의 事業者團體 禁止行爲는 13건으로 재판매가격유지의 강요, 비조합 할인서점 배척, 비가격경쟁 억제 등 서점의 판매마진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書聯 및 傘下組合에 의한 競爭制限行爲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組合加入 制限行爲—조합가입요건으로 점포면적·서점매장면적·기존서점과의 거리 등 규정, 인근서점의 동의요구, 공동구매기금 납부요구

2) 構成事業者의 事業內容·活動制限—정기 휴일위반서점에 대한 벌금부과 및 서적출고금지; 장소변경제한; 할인판매 및 끼워주기금지; 비조합서점, 할인서점, 타지역서점에 대한 서적판매금지; 타지역에서 횡류된 서적구입금지; 고급포장지 사용규제

3) 事業者에 不公正去來行爲 強要—총판 등

〈表 11〉 公正去來法 違反事件：1981~90

| 違反行爲 | | 件數 | 圖書種類 |
|--|--------------|-----------------------|-------------------------|
| 出版社 不公正去來行爲 | 부당표시 | 5건 | 학습참고서 |
| | 허위과장광고 | 5건 | 시험준비도서, 여성지, 전집 |
| | 판매지역제한 | 1건 | 학습참고서 |
| | 배타적 거래 | 1건 | 만화 |
| | 집단배척 | 1건 | 만화/무협지 |
| 不當한 共同行爲 | 3건 | 학습참고서, 여성잡지 | |
| 書聯 및 傘下組合 事業者團體 禁止行爲 韓國日書協議會 事業者團體 禁止行爲 書店 不公正去來行爲 | 공급거절 집단배척 | 13건 1건 1건 1건 | 수입일서 학습참고서 만화/무협지 |
| 計 | | 32건 | |

도매상에게 할인서점, 비조합서점에 대한 공급중단요구; 할인서점에 공급하는 총판이나 도매상에게 집단배척, 외상대금결제거부, 공동구매기금으로 타총판 구입 또는 출판사지거래 위협; 교재할인판매출판사에 대한 집단적 반품조치

4) 再販賣價格維持 強要—할인판매서점 적발활동, 시정경고, 제명, 벌칙금부과 및 도서 출고정지 등 제재조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서의 재판매가격 유지에 있어서도 할인판매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新規進入書店이나 부수적으로 도서를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代理注文 등의 방법으로 학습참고서 등 인기도서를 확보하여 끼워주거나 할인판매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매점과 일부 소비조합은 학습참고서 성수기인 新學期初에 再販圖書를 대량 구입하여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련 및 산하 서적상조합은 할인 판매를 막고 마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평적 경쟁제한행위를 취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당국은 재판매가격의 水平的 維持努力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당국은 “서적상이 재판서적을 할인판매하는 것은 재판계약 위반행위이므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계약당사자인 출판사가 계약내용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서 [서적상조합이] 직접 제재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⁷⁾고 밝히고 있으며, 도매상의 비재판서적상에 대한 서적공급여부도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상이 결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출

7)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法 審決集』(제8권), 인천 직할시 서적상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판사가 경고, 기한부거래제한 또는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⁸⁾ 보고 있다.

V. 圖書流通의 經濟學

1. 再販賣價格維持

재판매가격유지란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이

재판매되는 가격을 去來契約條件으로 규정하여 모든 小賣店에서 동일한 가격에 제품이 판매되도록 하는 것이다. 再販賣價格維持는 인기도서의 판매마진을 보호하여 서적상의 비인기도서 재고를 증진하려는 수단으로 어떤 다른 제품보다도 圖書流通에서 가장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도서의 재판매 가격유지는 1829년에 영국에서 처음 적용되었는데 주로 출판업자들이 할인판매서점과의 去來拒絕를 통하여 재판매가격을 유지하였으며⁹⁾, 그들은 販賣展望이 불확실한 책의 展示를 報償해 주기 위하여 서적상의 마진보장이 필요하다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였다¹⁰⁾. 저자들, 특히 無名の 젊은 著書들에게는 그들의 著書販賣가 주로 서점의 展示·陳列에 달려 있지만 대부분의 서점들은 未販賣에 따른 손실 위험을 보전할 만큼 높은 평균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한 無名作家들의 책을 전시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적상의 재고가 대단히 빈약하므로 경쟁을 통해서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응수하였다.

영국의 圖書 再販賣價格維持協定은 1852년에 폐지되었으나 F. Macmillan은 1890년 서적상들의 회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Net price system을 이용하여 재판매가격유지제를 다시 도입하였다¹¹⁾. Alfred Marshall의 *Principles of Economics*는 이 제도에 따라 판매된 최초의 책 가운데 하나였다¹²⁾. 1899년에는 출판사와 서점간에 正價本協定(Net book agreement)이 체결되었으며¹³⁾ 이 제도는 그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1962년에 Restrictive Practices Court가 公益要件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기에 이

-
- 8)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法 審決集』(제7권), 대전 시 서적상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 9) 영국의 도서 재판매가격유지경험에 대한 논의는 B.S. Yamey(1966), pp.754~776 참조.
 - 10) 이러한 논의의 한가지 예는 James J. Barnes(1964), 5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公正去來白書』에서도 출판업자와 같이 需要強度가 다른 많은 품목을 판매하는 제조업자가 판매속도가 빠른 인기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이익률을 보장하는 선에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면 소매업자에게 비인기품목의 在庫維持費用을 보상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품목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으므로 출판물 등의 저작물에 再販賣價格維持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 公益에 부합한다고 밝히고 있다.
 - 11) Net price system의 導入過程에 대한 설명은 Yamey(1966), p.761 以下와 C.W. Guillebaud(1965) 참조.
 - 12) 圖書의 再販賣價格維持에 대한 Marshall의 견해는 C.W. Guillebaud(1965) 참조.
 - 13) Net book agreement는 책의 표준적인 去來條件을 정하고 協定에 참가한 출판사들이 이를 지킬 것을 약정한 것으로 그 이후 몇차례 수정되었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책은 正價本(net books)과 非正價本(non-net books)의 두 부류로 구분된다. 正價本の 가격은 固定되어 있으며 할인판매서점에 대해서는 출판사들이 거래를 거절하여 再販價格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책은 대부분 非正價本으로 정가의 2/3 가격으로 서점에 공급되는 정가본보다 割引率이 적다.

르렀다¹⁴⁾.

미국의 출판업자들은 영국의 Net price system 導入時期와 비슷한 때에 재판매가격유지를 채택하였지만 표시가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출판사들의 노력은 사실상 없었다. 그러다가 1900년에 미국전역의 대다수 출판업자들은 자기들의 著作權書籍 小賣價格을 유지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에 따라 참여출판사들이 American Publishers Association을 설립하였으며 서로 협력하여 할인판매서점에 대한 도서공급을 거절하기로 하였다. 1년 후에는 출판업자들의 재판매가격유지노력에 협조할 목적으로 미국내의 90%에 달하는 서점들이 American Booksellers' Association을 조직하였으며 ABA는 APA에 할인서점명단을 제공하고 할인서점에 대한 도서공급을 거절하였다. 구체적인 재판매가격유지방법은 출판사가 책에 小賣價 및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著作權侵害라는 것을 밝히고 할인판매가 일어나는 경우에 출판사들이나 타서점들이 공급을 거절하여 할인서점을 처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도서 재판매가

격유지노력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1906년에 연방대법원은 著作權法令들이 저작권소유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제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¹⁵⁾. 또한 뉴욕의 대형 소매점인 R.H. Macy & Co.는 가격인하를 이유로 서적공급을 중단한 APA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13년 聯邦大法院은 APA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Sherman法에 저촉된다고 판결하고 Macy의 승소를 결정하였다¹⁶⁾. 이 판결로 재판매가격유지는 불법화되었으며 그 이후 재판매가격유지를 시행하려는 노력은 간헐적으로 계속되어 왔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⁷⁾.

이처럼 圖書流通에서 再販賣價格維持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출판사와 서점들은 割引販賣競爭으로부터 서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재판매가격유지에 대한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부터 몇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1) 書籍商들의 談話: 도서의 재판매가격유지에 대한 가장 명백한 설명은 이 제도가 유통마진을 獨占水準으로 올려 서적상들의 이윤을 늘리려는 反競爭的 行爲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왜 출판업자들이 서점의 판매마진을 높이고 자기들의 판매량과 이윤을 감소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서적상들은 보통 소규모의 독립적 사업자들로서 그들이 출판사들에게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성공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경우에 재판매가격유지는 처음에 서적상조합이 촉구하여 채택되었지만 보다 근래에는

14) 이 결정을 내린 Buckley대법관은 정가본협정이 폐기되면 ① 구색을 갖춘 서점수가 감소하고 ② 책값이 비싸지며 ③ 발행종수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승인하였다. M. Lightfoot(1976), pp.75~79 참조. 그러나 잡지는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15) Bobbs-Merrill Co. v. Strauss, 210 U.S. 339(1906).

16) Straus and Straus, Composing the Firm of R.H. Macy & Co. v. American Publishers' Association, 231 U.S. 222(1913).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하여 조직되었던 APA는 1913년의 Macy判決 후에 해체되었다.

17) D.J. Vanier(1973), p.135 및 C.B. Grannis(1975), pp.87~89 참조.

출판사들이 先導하여 왔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書聯이 도서의 定價販賣制를 주도하여 왔지만 출판사들의 공감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또한 출판사들도 사업자 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서점의 집단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販賣前 特別서비스: Telser(1960)는 재판매가격유지가 판매점의 製品特화된 販賣前 서비스(product-specific presale services) 제공에 대한 보상을 하여 수요증대를 가져오는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은 컴퓨터, 음향기기 등 여러 제품에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도서유통에 있어서는 출판사들이 마진보호를 통하여 추진해야 하는 판매전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서점들은 신용판매, 날권주문처리 등 여러가지로 서비스제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書店서비스들은 無賃乘車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재판매가격유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서점들이 갖추고 있는 도서의 種數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흔히 서점의 마진보호에 대한 이유로서 광범위한 재고유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서점의 在庫도 무임승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3) 市場情報서비스(market testing service): 유통업자는 소비자들에게 商品情報를 전달할 뿐 아니라 제조업자에게 시장정보를 수집·전달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재판매가격유지가 이 유통업자들의 市場調査서비스를 보상해주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¹⁸⁾. 소비자들의 기호와 수요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전달하는 유통업자의 기능은 출판사와 같이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여러 品目を 동시에 시장에 내어놓는 제조업자에게 더욱 중요하다. 각 品目の 需要強度를 알아내기 위해서 출판업자는 우선 서점에 자신의 全品目이 취급·전시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적상에게 전품목에 대한 경쟁적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사후적으로 비인기 도서들의 수익률은 負가 될 것이므로 이는 서점이 인기도서의 판매에서 超競爭的 收益率을 얻을 것으로 예상해야만 전품목을 취급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서점들이 도서주문을 미루다가 성공적 도서만을 주문하여 판매한다면 인기도서들의 유통마진이 경쟁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전품목 취급유인은 사라지게 된다. 즉, 全品目を 취급하는 판매점이 비인기품목을 취급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인기품목의 초경쟁적 판매마진을 통하여 회수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報償方法은 시장정보가 밝혀진 후에 인기품목만을 주문하여 판매하는 機會主義的 販賣業者들로 인하여 무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자는 판매점이 전품목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수가 없게 되어 소비자수요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때 제조업자는 再販賣價格維持 또는 全品目取扱強制(full-line forcing)를 통하여 이 무임승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도서의 재판매가격유지는 판매전망이 불확실한 여러 책들을 내놓는 출판사가 자기의 출판물들을 서점에 전시·진열되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도서들을 취급하여 출판사가 고객수요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經路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서점을 보상해 주기

18) H.P. Marvel & P.B. Reagan(1987) 참조.

위한 수단이 된다.

2. 返品과 再販賣價格維持

출판사들은 보통 서점에 賣殘品을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비용이 따르지만 출판사와 서점간의 거래에서 오랫동안 쓰이고 있는 제도이다.

도서는 판매전에 그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품이므로 제한된 자본으로 운영되는 서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주문하게 되며 도서에 대한 독자호응도의 증거나 표시를 얻을 때까지 주문을 미루려고 한다. 그러나 독자의 반응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서점에 책이 진열되도록 해야 하므로 출판사는 도서의 인기도가 드러나기 전에 서점들이 자기 도서를 취급·진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출판사는 서점에 未販賣圖書의 返品을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재고과잉으로부터 서점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반품제는 소매가격의 最低線을 설정하고 시장도입비용의 상당부분을 출판사로 재이전하는 것으로 판매부진에 따르는 서점의 손실위험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서점의 도서취급·진열을 유도하고 對讀者 露出機會를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물론 과잉재고는 다른 소매업에서도 발생하며 소매점들은 염가판매를 통하여 이를 처분하는 것

이 보통이다. 그러나 도서의 경우 비인기도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보다 대단히 가격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서점으로서는 우편 및 기타 부대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반품하는 편이 유리하다. 또한 서점은 반품을 통하여 운전자금을 확보하고 재고품을 정리하여 새로 新刊과 既刊書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도서의 返品制度는 출판사가 발행한 책들이 서점에 진시되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쓰이는 것으로 재판매가격유지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와 반품제는 각기 다른 비용과 문제점을 수반하게 된다. 未販賣圖書가 출판사로 반품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품도서들의 상당부분이 파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보면 현재의 委託販賣-返品制度에 수반되는 도서의 운송·취급비용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판매가격유지의 문제점은 비인기도서로 판매된 책들을 처분할 수 있는 서점의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이지만 도서반품과 이에 따르는 대금결제관리의 감시비용(monitoring costs)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반품의 취급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반품정책보다 재판매가격유지가 선호될 것이다.

반품제와 재판매가격유지는 도서의 展示·陳列에 대한 대체적 보상방법이 되므로 만일 도서의 재판매가격이 유지되지 못하여 인기도서의 판매마진이 감소하게 되면 위탁판매와 이에 따른 반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재판매가격유지가 違法化되자 출판사들은 그 代案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반품을 허용하였다¹⁹⁾. 사실 도서유통에서의 반품은 미국 특유의 제도로서

19) 미국의 경우 Curtis G. Benjamin (*Publishers' Weekly*, April 24, 1981)은 출판사들이 부담하는 반품의 직접적 비용이 약 8천만달러, 서점의 운송비까지 포함한다면 약 1억 2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hatzkin(1982, p.102)은 이 취급비용에 파손 및 판매손실 기회비용을 포함시킨다면 출판업자들의 비용이 약 1억 5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H. Arnold가 1913년 재판매가격유지를 위법화한 Macy判決이 있던 무렵에 American Booksellers' Association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제안하였던 것이다. 반품은 서적이 얼마나 잘 팔릴지를 알지 못하면서 주문하는 서점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처음에는 선별적으로 쓰였으나 1930년대와 40년대에 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보편화되었다²⁰⁾. 미국에서 할인판매서점들이 확장되기 전인 1976년의 반품률은 보급판 판매의 17.4%였으나 그 이후 할인판매채인의 출현·확장으로 판매속도가 빠른 도서의 판매마진이 줄어들면서 1983년에는 20.1%, 1984년에는 24.3%로 반품률이 크게 증가하여 왔던 것을 볼 수 있다²¹⁾. 하지만 도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返品이 서점에게 판매가 불확실한 책들을 취급하도록 유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지만 재판매가격유지를 허용해 온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의 출판업자들은 返品制度를 반대하여 왔으며 서점들도 반품제 없이 서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20) 원래는 반품가능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출판사들은 책이 가능한 한 오래 서점에 진열되도록 하여 판매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고본발행이 빈번해져 원판이 거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자 재판출판전에 초판반품을 받도록 반품기한을 두게 되었다. 반품이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문고본혁명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하며 또한 보급판 출판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21) 할인판매가 성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Consumer Goods Pricing Act의 통과로 각 주의 재판매가격유지 허용권한이 취소되었고 美法務部の 反트러스트法 시행이 강화되어 재판매가격유지가 더욱 어려워졌던 1970년대 후반기와 시기적으로 대략 일치하고 있다.

VI. 政策提案

도서의 재판매가격유지는 서점의 市場調査 서비스를 보상해 주는 수단으로서 판매전망이 불확실한 圖書의 市場導入을 촉진하여 출판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므로 公正去來法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해 주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고 하겠다. 재판매가격유지 허용은 도서유통산업의 구조와 유통관행에 다음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① 再販賣價格維持가 返品制와 동일한 經濟的機能을 수행하는 대체적 수단이 되는 한 返品費用이 큰 출판사들은 반품제에 덜 의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② 재판매가격유지는 서점들에게 大型化 誘引을 제공할 것이다. 재판매가격이 효과적으로 유지된다면 서점간의 판매가격이 동일해지므로 독자들은 다양한 도서를 구비하고 있는 대형서점을 선호하게 된다. 독자들은 購買에 앞서 책들을 뒤져 보려는 경향이 강하여 이용이 다소 편리할지는 모르나 재고가 빈약한 서점보다는 원하는 책을 판매할 가망성이 높은 대형서점을 이용하려고 한다. 사실 80년대의 서점 대형화추세는 도서의 재판매가격유지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재판매가격이 효과적으로 유지된다면 이미 이름이 알려진 既成作家들보다는 新進作家들이 그 주된 수혜자일 것이다. 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新參著者들의 책도 독자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더 용이해질 것이지만 독자들은 인기도서들을 보다 비싼 값에 구입하게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적상조합들은 주로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하여 公正去來法 違反行爲를 하였다. 먼저 할인판매성향이 높은 비정규서점의 參入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조합가입요건을 규정하여 조합가입을 제한하였으며,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하여 할인판매서점 및 그 공급처에 대하여 直·間接的으로 去來拒絕을 하였고, 끼워주기 등 간접적인 할인판매와 非價格競爭을 통제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가 再販契約 위반서점을 적발하여 거래중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현재의 유통구조와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전국적으로 수천에 달하는 서점들이 있고 대부분의 서점들은 소규모로서 多種少量注文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출판사가 각 도서의 수량과 위치를 추적해 나가는 일이 불가능하여 割引販賣書店으로의 도서유입을 방지할 수단이 없다. 또한 출판사들의 자본규모가 영세하고 신용위주의 위탁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거래정산상의 문제 등으로 할인판매서점에 대하여 거래거절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출판사가 재판매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書聯과 같은 단체가 없다면 실제적으로 재판매가격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적상조합들은 再販出版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도서에 대하여 정가대로 판매할 것을 서점들에게 추구하고 있으며 再販圖書가 아닌 출판물

도 정가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나, 재판매가격유지는 출판사가 원하는 도서에 대해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재판매가격유지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는 해당출판사가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재판매가격유지와 반품제도는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제공하는 대체적 수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出協에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위임한 출판사가 145개사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반품제도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出版物 再販賣價格維持·契約書에는 출판후 3년이 경과한 출판물에 한해서만 재판매출판사가 정가표시를 말소하고 이를 서점에 통보하여 재판매가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도서들이 평균 1년 이내에 반품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도서의 정상적 書店割引販賣를 저해하고 返品率을 높이는 非效率을 초래하게 된다. 더구나 출판사는 반품된 재고도서를 파기처분하거나 헐값에 비정상적 유통경로로 投賣하게 되어 덤핑서적이 범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반품도서는 도매서점의 창고나 소매서점의 진열대에 상당기간 판매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출판사에 되돌려보면 책들로서 이미 商品價値를 잃은 도서이며 반품은 커다란 자원낭비를 수반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출판사가 할인판매여부와 시기를 제한없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²²⁾.

도서판매는 서점의 陳列·展示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출판사는 서점의 진열공간을 가

22) 영국의 正價本協定에서도 申告本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정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 또는 판매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도서는 서점에 진열·전시되어 독자들에게 소개되기 전까지는 그 성공여부를 예상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품으로서 中小書店들은 대부분 賣殘品の 결손을 우려하여 판매가 불확실한 단행본이나 전문도서의 취급을 기피하고 학습참고서와 잡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출판량에 비하여 매장면적이 엄청나게 부족한 결과 독자들은 일반 중소서점에서 원하는 도서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며, 많은 책들이 충분한 판매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출판사로 되돌아와 도서의 返品率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들의 다양한 수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시장정보를 출판사에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출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점의 대형화를 통한 도서전시공간의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中小書籍商들이 書聯을 중심으로 생존권보호의 차원에서 대형서점의 출현을 반대 지지하고 있지만 이는 공정거래정책의 타당한 고려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은 競爭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競爭者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중소서점의 보호·육성 및 대형서점과 중소서점의 공존은 중소서점의 전문화나 연쇄화사업 등 다른 정책수단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VII. 結 論

우리의 公正去來法은 원칙적으로 再販賣價格維持를 금지하고 있지만 도서의 경우에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를 예외

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실 圖書의 再販賣價格維持는 판매전망이 불투명한 책을 서점이 취급·전시하도록 유도하여 시장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經路를 제공하고 출판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返品制는 도서유통상의 오랜 慣行으로서 책의 市場導入費用을 출판사로 再移轉하여 賣殘品の 손실위험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서점의 취급·전시를 유도하고 對讀者 露出機會를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즉, 도서유통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와 반품제는 출판사가 발행한 책들이 서점에 전시되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제공하는 代替的手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반품제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再販賣價格維持契約을 체결한 출판사는 145개사에 불과하나 실제적으로는 再販圖書뿐 아니라 거의 모든 도서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한 서적상조합의 수평적 노력과정에서 경쟁제한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산업 전반에 걸친 재판매가격유지는 반품제와 서로 어울려 소매가격의 硬直性을 초래하며 이는 비인기도서의 서점할인판매를 저해하고 返品率을 높이는 비효율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재판매가격유지는 출판사가 원하는 도서에 대해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도서의 할인판매여부와 시기도 출판사가 수요여건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원낭비를 유발하는 반품을 줄이고 늘어나는 출판량의 판매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書店의 大型化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통시장의 대외개방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소서점의 보호육성과 경쟁

력 제고 및 대형서점과 중소서점의 공존을 위

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 參 考 文 獻 ◁

- 金承均, 「서점 거래제도의 개선방안」, 『출판문화』, 1984. 8, pp. 2~3.
- 李斗暎, 「도서정가판매제도 시행의 현상」, 『출판문화』, 1985. 4, pp. 2~8.
- 李重漢, 「大型書店에 대한 管見」, 『출판문화』, 1984. 12, pp. 9~11.
- 尹炯斗, 『出版物 流通論』, 汎友社, 1989.
- 陳昌甲, 「定價制度와 對讀者 奉仕」, 『출판문화』, 1984. 8, pp. 4~5.
- 韓國出版研究所, 『圖書流通實態調查研究』, 1988.
- , 『圖書流通體系 및 管理改善研究』, 1989.
- 許昌成, 「韓國 出版物 販賣의 進路」, 『출판문화』, 1987. 10, pp. 4~11.
- 辻吉彦, 『再販賣價格維持制度』, 小學館, 1990.
- 倉澤資成, 「流通の多段階性と返品制: 纖維アベレル産業」, 三輪芳朗・西村清彦(編), 『日本の流通』, 東京大學出版部, 1990, pp. 189~224.
- 丸山雅祥, 「日本の商慣行と返品制度」, 『ジエリスト』, 1990. 2. 15, pp. 63~67.
- Arnold, W.H., "More Steps Forward," *Publishers' Weekly*, May 17, 1913, pp. 1750~1753.
- Barnes, James J., *Free Trade in Books: A Study of the London Book Trade since 1800*, Oxford: Clarendon Press, 1964.
- Compaine, Benjamin M., *The Book Industry in Transition: An Economic Study of Book Distribution and Marketing*, White Plains, N.Y.: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s, 1978.
- Dessauer, John P., *Book Publishing: What It Is, What It Does*, New York: R.R. Bowker, 1981.
- Grannis, Chandler B., "More Than Merchants: Seventy-Five Years of the ABA," in C.B. Robinson(ed.), *Bookselling in America and the World: Some Observations and Recollections*, New York: Quadrangle/New York Times Book Co., 1975, pp. 3~25.
- Guillebaud, C.W., "The Marshall-Macmillan Correspondence over the Net Book System," *Economic Journal*, September 1965, pp. 518~538.
- Lazear, E., "Retail Pricing and Clearance Sale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86, pp. 14~32.
- Lightfoot, M., "The Distribution of Books: Weak Link in the Publishing Chain," in Philip G. Altbach and Sheila McVey(eds.), *Perspectives on Publishing*, Lexington, MA: D.C. Heath/Lexington, 1976, pp. 75~79.
- Marvel, H.P. and P.B. Reagan, "Vertical Restraints and Product Introduction," Mimeo, Ohio State University, December 1987.
- Shatzkin, Leonard, *In Cold Type: Overcoming the Book Crisis*, Boston: Houghton Mifflin, 1982.
- Shin, Kwang-shik, "The Economics and Public Policy of Resale Price Maintenance,"

Korean Economic Review, Summer 1990,
pp.203~215.

Tebbel, J., "A Brief History of American
Bookselling," in C.B.Robinson (ed.), *Book-
selling in America and the World: Some
Observations and Recollections*, New
York: Quadrangle/New York Times
Book Co., 1975, pp.3~25.

Telser, Lester G., "Why Should Manufac-
turers Want Fair Trad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October 1960, pp.86
~105.

Vanier, Dino J., *Market Structure and the
Business of Book Publishing*, New York:
Pittman, 1973.

Yamey, B.S., "Price Maintenance of Books in
Britain: The Historical Background," in
Tullio Bagiotti(ed.), *Studi in Onore di
Marco Fanno*, Padova: Edizioni Cedam,
1966, pp.754~776.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案內

- ①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18 切 判/ 122 筭
高級洋裝/3,000 圓
- ②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18 切 判/ 158 筭
高級洋裝/3,600 圓
- ③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紈 著 18 切 判/ 250 筭
高級洋裝/5,600 圓
- ④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18 切 判/ 146 筭
高級洋裝/3,000 圓
- ⑤ 農產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 柳炳瑞 共著 18 切 判/ 318 筭
高級洋裝/7,000 圓
- ⑥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編 18 切 判/ 254 筭
A.O. Krueger 高級洋裝/6,000 圓
- ⑦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洪 著 18 切 判/ 198 筭
高級洋裝/4,600 圓
- ⑧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18 切 判/ 294 筭
高級洋裝/6,600 圓
- ⑨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金光錫 著 18 切 判/ 336 筭
L.E. Westphal 共著 高級洋裝/7,600 圓
- ⑩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236 筭
高級洋裝/5,000 圓
- ⑪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18 切 判/ 202 筭
高級洋裝/4,600 圓
- ⑫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季 著 18 切 判/ 250 筭
高級洋裝/5,600 圓
- ⑬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18 切 判/ 508 筭
高級洋裝/11,000 圓
- ⑭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教 編 18 切 判/ 492 筭
高級洋裝/11,000 圓
- ⑮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教 編 18 切 判/ 342 筭
高級洋裝/7,600 圓
- ⑯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18 切 判/ 532 筭
高級洋裝/11,600 圓
- ⑰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18 切 判/ 252 筭
高級洋裝/5,600 圓
- ⑱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18 切 判/ 370 筭
高級洋裝/8,000 圓
- ⑲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18 切 判/ 244 筭
高級洋裝/5,600 圓
- ⑳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18 切 判/ 214 筭
高級洋裝/4,600 圓
- ㉑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410 筭
高級洋裝/9,000 圓
- ㉒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 著 18 切 判/ 194 筭
M. Roemer 共著 高級洋裝/4,000 圓

23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18 切 判/ 306 筭
高級洋裝/7,000 圓

24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18 切 判/ 204 筭
高級洋裝/4,600 圓

25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共著 18 切 判/ 166 筭
朴埈卿 高級洋裝/3,600 圓

26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18 切 判/ 198 筭
高級洋裝/4,600 圓

27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共著 18 切 判/ 250 筭
林栽煥 高級洋裝/5,600 圓

28 纖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18 切 判/ 180 筭
高級洋裝/4,000 圓

29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18 切 判/ 192 筭
高級洋裝/4,600 圓

30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18 切 判/ 470 筭
高級洋裝/10,600 圓

31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宋丙洛 編 18 切 判/ 410 筭
高級洋裝/9,000 圓

32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18 切 判/ 272 筭
高級洋裝/6,000 圓

33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18 切 判/ 236 筭
高級洋裝/5,000 圓

34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共著 18 切 判/ 270 筭
E.S. Mills 高級洋裝/6,000 圓

35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18 切 判/ 306 筭
高級洋裝/7,000 圓

36 韓國工業化 패턴과 그 要因

金光錫 著 18 切 判/ 272 筭
高級洋裝/6,000 圓

37 保健醫療資源과 診療生活圈

延河清 共著 18 切 判/ 336 筭
金學泳 高級洋裝/7,600 圓

38 韓國의 教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外 18 切 判/ 272 筭
N.F. McGinn 高級洋裝/6,000 圓

39 貿易·外援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18 切 判/ 256 筭
田英鶴 譯 高級洋裝/5,600 圓

40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414 筭
高級洋裝/9,000 圓

41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384 筭
高級洋裝/8,600 圓

42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 1910~75

A. Keidel 著 18 切 判/ 268 筭
高級洋裝/6,000 圓

43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共著 18 切 判/ 396 筭
潘性執 高級洋裝/9,000 圓
D.H. Perkins

44 需給構造과 物價政策

李煥 著 18 切 判/ 288 筭
高級洋裝/6,000 圓

45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の 役割

司空壹 共著 18 切 判/ 410 筭
L.P. Jones 高級洋裝/9,000 圓

46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清 著 18 切判/ 214쪽
高級洋裝/4,600원

47 韓國 經濟·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外 18 切判/ 530쪽
E.S. 메이슨 高級洋裝/11,600원

48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李天杓 著 18 切判/ 228쪽
高級洋裝/5,000원

49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朱鶴中 著 18 切判/ 432쪽
高級洋裝/9,600원

50 國民經濟와 福祉年金制度

延河清 共著 18 切判/ 428쪽
閔載成 高級洋裝/9,600원

51 技術革新의 過程과 政策

金仁秀 共著 18 切判/ 402쪽
李軫周 高級洋裝/9,000원

52 韓國의 經濟開發과 人口政策

R. 레페토 外 18 切判/ 328쪽
金善雄 高級洋裝/7,000원

53 韓國의 金融發展: 1945~80

D.C. 콜 共著 18 切判/ 334쪽
朴英哲 高級洋裝/7,600원

54 韓國의 賃金構造

朴烜求 共著 18 切判/ 440쪽
朴世逸 高級洋裝/10,000원

55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金光錫 共著 18 切判/ 238쪽
朴竣卿 高級洋裝/5,400원

56 轉換期の 韓國經濟와 金融政策

金重雄 共著 18 切判/ 354쪽
南相祐 高級洋裝/8,000원

57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延河清 著 18 切判/ 348쪽
高級洋裝/8,000원

58 地方財政調整制度와 財源配分

李啓植 著 18 切判/ 280쪽
高級洋裝/6,000원

59 벤처캐피탈의 役割과 課題

姜文秀 著 18 切判/ 236쪽
高級洋裝/5,000원

60 家計貯蓄과 租稅政策

李啓植 著 18 切判/ 366쪽
高級洋裝/8,000원

61 韓國의 公企業管理政策

宋大熙 著 18 切判/ 310쪽
高級洋裝/8,400원

62 韓國經濟의 歷史的 照明

具本湖 編 18 切判/ 368쪽
李奎億 半洋裝/11,000원

❁ 韓國開發研究院 新刊案内 ❁

中小企業의 産業調整과 中小企業支援施策의 改善方案 朴 垞 卿 外
 半洋裝 / 18切判 / 256쪽 / 定價 6,600원

經濟規制와 競爭政策(II) 李 奎 鍾 億 爽 編
 半洋裝 / 18切判 / 424쪽 / 定價 10,000원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0) 宋 權 大 純 熙 源 編
 半洋裝 / 18切判 / 514쪽 / 定價 11,000원

經濟開放과 巨視經濟運用 朴 元 巖 外
 半洋裝 / 18切判 / 208쪽 / 定價 6,200원

國民年金財政의 安定化를 위한 政策課題 및 方向 南 相 祐 外
 半洋裝 / 18切判 / 194쪽 / 定價 5,600원

開放化와 下都給體制的 改編 金 趙 周 觀 勳 行 著
 半洋裝 / 18切判 / 268쪽 / 定價 7,600원

韓國經濟의 歷史的 照明 具 李 本 奎 湖 億 編
 半洋裝 / 18切判 / 368쪽 / 定價 11,000원

KDI圖書會員制 案内

會員에 대한 特典

- 會員加入期間(1년)중 本 研究院이 發刊하는 一切의 刊行物을 郵送함.
 (단,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제외)
- 本 研究院 情報資料室 所藏圖書·資料의 利用惠澤을 드림.

會 費 : 60,000원

加入方法

- 직접 本院 發刊資料相談室에 拂入하거나,
- 가까운 郵遞局에서 本院 郵便對替計座(計座番號 : 010983-31-0514919)에 拂入하면 됨.

問 議 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의 41 우편번호 : 130-012

KDI 발간자료상담실(Tel. 960/3283, 960/4811(交) 305)

빈 면

English Summary
of
THE KOREA DEVELOPMENT REVIEW

A Quarterly Journal Published in Korean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Vol. 13, No. 2

Summer 1991

- | | |
|---|--|
| M2 Velocity and Expected Inflation in Korea: Implications for Interest Rate Policy /169 | <i>Park Woo-kyu</i> |
| Real and Monetary Determinants of Korea's Real Exchange Rate /170 | <i>Park Won-am</i> |
| Local Autonomy, National Economy and Local Public Finance /170 | <i>Lee Kye-sik</i> |
|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n Subcontracting System in Korean Automotive Industry /172 | <i>Kim Joo-hoon</i> <i>Cho Kwan-haeng</i> |
| The Competition Policy and Major Industrial Policy-Making in the 1980's /173 | <i>Choi Jong-won</i> |
| A Reform Proposal for Management of Regulated Prices /174 | <i>Kim Jong-seok</i> |
| Returns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in Book Distribution /175 | <i>Shin Kwang-shik</i> |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was founded in 1971 to conduct independent research on the Korean economy and related matters and to assist government policy making. The research results are published in books, monographs, working papers, seminar papers, etc., and in journals.

Since 1979 the *Korea Development Review*, one of two quarterly journals in Korean, publishes in a concise form the Institute's research results—mainly studies of policy-related economic issues. Views expressed herein are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ose of the Editorial Board or the Institute.

President: Koo Bon-ho

Vice President: Nam Sang-woo

Research Staff:

| | |
|------------------|-----------------|
| Baek Ehung-gi | Choi Buhm-soo |
| Choo Hak-chung | Chun Hong-tack |
| Chung Chin-seung | Jwa Sung-hee |
| Kang Moon-soo | Kim Ji-hong |
| Kim Jong-gie | Kim Jong-seok |
| Kim Joon-kyung | Kim Kwan-young |
| Kim Myong-sook | Ko Il-dong |
| Kwon Soon-won | Lee Duk-hoon |
| Lee Hong-gue | Lee Kye-sik |
| Lee Kyu-uck | Lee Won-young |
| Lee Young-ki | Min Jae-sung |
| Nam Il-chong | Oum Bong-sung |
| Park Eul-yong | Park Fun-koo |
| Park Joon-kyung | Park Woo-kyu |
| Park Won-am | Roh Kee-sung |
| Shim Sang-dal | Shin Kwang-shik |
| Son Jae-young | Song Dae-hee |
| Yeo Woon-bang | Yeon Ha-cheong |
| Yoo Il-ho | Yoo Jung-ho |
| Yoo Seong-min | Yoo Yoon-ha |
| Young Soo-gil | |

(Family names are given first.)

EDITORIAL BOARD

Editor in Chief: Song Dae-hee
Managing Editor: Park Woo-kyu
Board of Editors: Choi Buhm-soo
Kim Ji-hong
Kim Kwan-young
Yoo Seong-min
Technical Editor: Shin Dong-cho

M2 Velocity and Expected Inflation in Korea: Implications for Interest Rate Policy*

Park Woo-kyu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key determinants of long run movements of real M2 by using the Johansen procedure for estimating and testing cointegration relations. It turns out that the real M2 equation has been stable over the long run despite rapid changes in financial structure since 1975. Moreover, the real M2 equation can be reduced to a velocity equation with the opportunity cost variable, expected inflation less the weighted average rate paid on M2 deposits, being the key determinant. However, it does not work to use a market interest rate such as the yield on corporate bonds in place of expected inflation for calculation of the opportunity cost. In the U.S., a market interest rate can be used, but not in Korea.

Presumably, two somewhat different reasonings can be used to explain this result. One is that the yield on corporate bonds may not adequately reflect the inflationary expectations due to regulations on movements in interest rates. The other is that M2 deposits are not readily substitutable with such assets as corporate bonds because of market segmentations, regulations, and so on. From the policymaker's point of view, this implies that the inflation rate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a policy response. On the other hand, policymakers do not regard movements of the yield on corporate bonds as an important policy indicator. Altogether, the role of interest rates has been quite limited in Korea because of incomplete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an underdeveloped financial system,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policy measures, and so on.

The result that M2 velocity has a positive cointegration relation with expected inflation minus the average rate on M2 implies that frequent adjustments of the regulated rates on M2 will be necessary as market conditions change. As the expected inflation gets higher, M2 velocity will eventually increase, given that the rates on M2 do not change. This will cause higher inflation. If interest rates are liberalized, then increases in market interest rates will result in lagged increases in deposits rates on M2. However, in Korea a substantial portion of deposit rates are regulated and will not change without the authority's initiatives.

A tight monetary policy will cause increases in a few market interest rates. But

*A previous version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Modelling Global Interdependence* sponsored by the OECD Secretariat, the Brookings Institute, the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and KDI, and held at the KDI, May 27th and 28th, 1991

the market mechanism, upward pressure for interest rate adjustments, never reaches regulated deposit rates. Hence the overall effects of tight monetary policy diminish considerably, only causing distortions in the flow of funds. Therefore, frequent adjustments of deposit rates are necessary as market conditions such as inflationary expectations change. Then it becomes important for the policymaker to actively engage in adjusting regulated deposit rates, because the financial sector in Korea is not fully developed.

Real and Monetary Determinants of Korea's Real Exchange Rate

Park Won-am

This paper introduces a two-sector model to analyze the real and monetary determinants of Korea's real exchange rate. So far, most studies on Korea's exchange rate have concentrated on the behavior of nominal exchange rate, but this study proposes a dynamic model of real exchange rate behavior in developing countries and estimates the real and financial determinants of Korea's real exchange rate behavior.

The estimation was performed over the period of 1980-89. The results show many interesting things. First, the monetary and fiscal expansion led to a real appreciation, which suggests that the monetary and fiscal stances be kept sound for a real depreciation. Second, the improvement in the terms of trade led to a real depreciation. This experience is in the contrast to the popular view that the improvement in the terms of trade will result in a real appreciation. Third, the productivity growth led to a real appreciation, but this effect of the Ricardo-Balassa type was not significant. Finally, the nominal devaluation was quite effective to produce a real depreciation. This result also supports Korea's exchange rate policy in the 1980s which was based upon the real target approach instead of nominal anchor approach.

Local Autonomy, National Economy and Local Public Finance

Lee Kye-sik

Local autonomy of Korea's lower-level local council has been reinstated following elections last March for the first time in thirty years. Last June, we had elections for the upper-level local council. Mayors, governors, and administrative chiefs of cities, pro-

vinces and other local government bodies are slated for elections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The impacts of local autonomy are taking effect in not only the political sphere, but also th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spheres. In fact, it seems that some modification of all economic policy making and administration is inevitable. Since the initiation of local autonomy, in order to make the economy work more efficiently, it has become quite important to examine the impact of local autonomy on the national economy. The areas of local autonomy include independent legislative power, administrative power, organizational power, and most important of all, the independent public financial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local autonomy on the national economy and ways of enhancing the role of local public finance to facilitat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Local autonomy will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growth of our economy, allow balanced development, and generate greater efficiency. However, local autonomy can also incur economic costs causing at times short-term price instability,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ax competition and tax exporting, and insolvency of local government due to abusive fiscal operation. To reduce these side effects, different alternatives must be considered. Local autonomy systems generally provide mor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an centralization. But in the model used in Chapter 3 of this paper, the relative efficiencies of both local autonomy and centralization ar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national public goods and local public goods. If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s bigger than one, centralization provides a mor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could be attained through democratization of the local public finance system including the following three propositions. 1) The independence of public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stablished over central government. Furthermore, a democratically operated scheme of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is especially necessary. 2) In the operation of local finance, direct democracy is needed to induc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he residents can take part in planning both the local budget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To attain this goal, all the results of local finance operations should be made public. 3) Among economic ill-effect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most serious one is the possibility of insolvency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measures to limit abusive spending by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troduced, such as the fiscal restraints system adopted in the United States.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n Subcontracting System in Korean Automotive Industry

*Kim Joo-hoon
Cho Kwan-haeng*

Economic circumstances of enterprise began to change after a series of democratization measures in 1987. Accompanied with it, competitive advantage of enterprise began to change as well. By that time Korean enterprises had a competitive advantage based on low wages of labor. Abrupt and steady upsurge in wage, however, weakened competitive advantage based on low wages, upward revaluation of won currency caused by surplus in BOP strengthened upward trend in price increase of export products.

An urgent problem in Korea economy is, therefore, to find 'new' competitive advantage. For the time being preserving competitiveness based on cost advantage must inevitably remain our basic strategy in industrial policy. While cost advantage in the past referred to low wage level, this cost advantage must have foundation on the improvement in producing technology, which will increase labor productivity and decrease unit cost of products. Besides, other measure to improve competitiveness can be considered such as increasing the extent of production automation, self-development of new products, and spread and strengthening subcontracting system among various enterprises.

In this paper we tried to perceive how subcontracting system as a form of inter-company division of labor operates and to which direction this system proceeds responding to the recent changes in economic circumstances. Speaking more concretely, we tried to perceive how large the gap of bargaining power between mother-company and subcontracting company is and how effectively subcontracting company's technical power contributes to mother-company. Facing up to weakening of competitiveness, how stably is the partnership between mother-company and subcontracting company established and what measures are being prepared to restore the weakened competitiveness. In conclusion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hrough the questionnaire on subcontracting system is positive, from which we can infer the optimistic view of restoring Korean economy's competitiveness.

The Competition Policy and Major Industrial Policy-Making in the 1980's

Choi Jong-w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Korean antitrust agencies—the Office of Fair Trade (OFT)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during the making of the major industrial policies of the 1980's. The Korean antitrust agencies played only a minimal role in three major industrial policy-making issues in the 1980's: the enactment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IDA), the Industrial Rationalization Measures according to the IDA, and the Industrial Readjustment Measures on Consolidation of Large Insolvent Enterprises based on the revised Tax Exemption and Reduction Control Act.

As causes for this performance bias in the Korean antitrust system, this paper considers five factors according to the current literature on implementation failure: ambiguous and insufficient statutory provis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lack of resources; biased attitudes and motivations of the staff of the OFT and the FTC; bureaucratic incapability; and widespread misunderstanding about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antitrust system in Korea. Among these five factors, bureaucratic incompetence and lack of understanding in various policy implementation environments about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antitrust system have been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ones.

Most staff members did not have enough educational training during their school years to engage in antitrust and fair trade policy-making. Furthermore, the high rate of staff turnover due to a mandatory personnel transfer system has prohibited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pursuing complicated structural antitrust enforcement. The limited capability of the OFT has put the agency in a disadvantaged position in negotiating with other economic ministries. The OFT has not provided plausible counter-arguments based on sound economic theories against other economic ministries' intensive market interventions in the name of rationalization and readjustment of industries.

If the staff members of antitrust agencies have lacked substantive understanding of the antitrust and fair trade policy, the rest of government agencies must have had serious problems in understanding the correct roles and functions of the antitrust system. The policy environment of the Korean antitrust system, including other economic ministries,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President Chun, have tended to conceptualize the OFT more as an agency aiming only at fair trade policy and less as an agency that

should enforce structural monopoly regulation as well.

Based on this assess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antitrust system, this paper evaluate current reform proposals for the MRFTA. The inclusion of the regulation of conglomerate mergers and of business divestiture orders may be a desirable revision, giving the MRFTA more complete provisions. However, given deficient staff expertises and the unfavorable policy environments, it would be too optimistic and naive to expect that the inclusion of these provisions alone could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antitrust system.

In its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antitrust system, which would secure the stable development and accumulation of antitrust expertise for its staff members and enough understanding and conformity from its environments about its antitrust goals and functions.

A Reform Proposal for Management of Regulated Prices

Kim Jong-seok

The primary purpose of price regulation on public utilities and other public services is not to prevent them from rising and control inflation but to 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and reflect social values, when market does not function perfectly. That is, price regulation by government is a policy tool which is aimed at microeconomic effects.

Therefore, when a microeconomic policy tool is used for macroeconomic policy objectives, such as price stabilization, we can have problems stemming from the mismatch.

One of the examples is distortions in the relative price structure of resources. As government suppresses increases in regulated prices in an effort to reduce inflationary pressures, some of the public services become relatively cheaper, resulting in excess use of those services under regulation. Also, inflexibility of adjusting regulated prices to the overall price changes results in deterioration of qualities of public services.

This paper proposes a set of reform proposals which are intended to minimize such government failures. It is argued that the authority of price regulation should be decentralized, and ultimately done by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for each service.

The pricing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e and independent accounting by each service unit and the principle of beneficiaries bearing the costs of services.

Returns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in Book Distribution

Shin Kwang-shik

Resale price maintenance has long been employed in book distribution, perhaps longer than for any other product. Another unusual practice in the book trade that has proven to be quite durable in spite of its substantial cost in real resources is the returns policy. Publishers typically grant the right to return unsold books within a stipulated time for full credit against future order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unctions and effects of resale price maintenance in the book trade, and argues that resale price maintenance and returns are substitute methods of providing the same economic function. Resale price maintenance can be used to compensate booksellers for initially stocking books with uncertain prospects and for providing a conduit through which manufacturers acquire information about consumer demand (market testing services). Permitting the return of unsold books for full credit places a floor under retail prices and transfers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cost of introducing a new product line back to the publisher. Both reflect publishers' needs to have their books displayed. In the U.S. returns privileges were first proposed in 1913, roughly coincident with the Macy decision outlawing RPM. Publishers slowly granted return privileges, which become nearly universal by 1970. The decline in margins in recent years has been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returns as the return policy served to substitute for lost margins on successful titles as a methods of compensating full-line booksellers. In contrast, returns privileges are unusual in countries where price maintenance in books has been practiced. These observations are consistent with our analysis.

In Korea, resale price maintenance of books is practiced under an exception to Korean antitrust law. The availability of effective price maintenance is likely to reduce the use of returns programs. Since consumers prefer to obtain books at outlets where they know the books are likely to be stocked rather than taking a chance on stores that carry a more limited line, it also provides a strong incentive for booksellers to expand. But the privilege of resale price maintenance should be confined to books which publishers want to be price maintained. Resale price maintenance and returns system differ in the transactions costs associated with inventory holding, and publishers' judgement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two schemes should be honored. Publishers should also remain free to authorize sales at discount at any time not to impair the ability of booksellers to dispose of product variants that prove unpopular.

Working Papers from KDI

- | | | |
|------|--|---|
| 9008 | Korea: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and Government Initiatives to Reduce Disparities | Kwon Soon-won |
| 9009 | The Prospects for the Asia-Pacific Economies in the 1990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A Northeast Asian Perspective | Young Soo-gil |
| 9010 | Exchange Rate Policy for the East Asian NICs | Park Yung-chul & Park Won-am |
| 9011 |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 from a Planned to a Market Economy i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 Karl Heinrich Oppenländer |
| 9012 | Bridging the Chasm: Cooperative Economic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Yeon Ha-cheong |
| 9013 | Analysis of and Reform Proposals for "The Land Problem" in Korea | Son Jae-young |
| 9014 | Alternative Social Development Policy and Planning Scenarios Towards the Year 2000 and Beyond: The Case of Korea | Kim Kwan-young & Kim Won-shik |
| 9015 | Korean Industrial Policy in the 1970's: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Drive | Kim Ji-hong |
| 9016 | Ownership-Management Relations in Business: with Special Reference to Business Groups in Korea | Lee Kyu-uck |
| 9017 | The Industrial Policy of the 1970s and the Evolution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Korea | Yoo Jung-ho |
| 9018 | US Trade Policy and Its Effects on Korean Exports | Nam Chong-hyun |
| 9019 | A Proposal for Tax Reform in Korea | Roh Kee-sung |
| 9020 | Money Markets and Monetary Policy in Korea | Kang Moon-soo |
| 9021 | The Dilema of Democratic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 Oh John Kie-Chiang |
| 9101 |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Divergent Growth and A Test of Hypothesis | Robert Z. Aliber |
| 9102 | Problems of Urbanization and the Growth of Seoul, Korea | Kim Jong-gie, Kim Kwan-young & Son Jae-young |
| 9103 | Tax Reform in Korea | Kwack Tae-won & Lee Kye-sik |
-

Working Papers from KDI

- | | | |
|------|---|--------------------------------------|
| 9104 | The KDI Quarterly Model of the Korean Economy | Yoo Yoon-ha |
| 9105 | The External Adjustment of the Korean Economy | Yoo Yoon-ha & Park Won-am |
| 9106 | Technical Efficiency in Korea | Yoo Seong-min |
| 9107 | Environmental Consideration in Energy Development | Chung Chin-seung |

